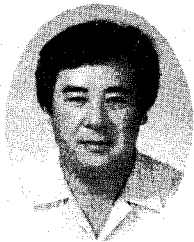


# 대한양계협회 소식

## 전남지부 정기총회 개최

- 1월20일, 카톨릭 센타에서 -



〈지부장 이종춘〉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이종춘)는 81년도 정기 총회를 지난 1월20일(수)오전 회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톨릭센타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81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에 산(안) 심의에 이어 지부 발전에 수고가 많은 조병택씨(남평 계우회장)와 임재균씨(담양 창평지역이사), 문현식씨(목포지회 총무)에게 각각 공로패를, 그리고 모범계란상인 조영신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 밖에 전남지부 총회는 결원된 임원 보선을 집행부에 일임하고 기타의결 사항에서 의례적으로 임원들에게 이사회 승인을 얻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82년도 제 1차 이사회 개최

금년도 제 1차 이사회가 지난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도 작년에 시작한 양계 산업 안정화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과 양계인의 단체인 협회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요청했다.

이날 토의된 주요내용은 양계 산업 안정화 작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T·V 홍보 활동의 계속 추진과 개선책이 논의되었으며 무허가 부화장의 양성화 등이 거론되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관리의 건
2. '81 수지결산 심의
3. '82 중점사업토의

- 가. 양계 산업 안정화 작업 구체화
- 나. 지역단위 양계조합 결성을 돕는 작업
- 다. 육계 수급조절을 위한 제조직
- 라. 도계품 유통상의 문제점.

## 경북지부 전화번호 변경

본회 경북지부(지부장 박규병)의 전화번호가 1월23일 0시를 기해 752-8619로 바뀌었다. ☎ 대구 (752)8619.

## 제 1 차 검정위원회 개최.

지난 1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 1차 검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제13회 육용계 및 제16회 산란계 검정성적 검토와 순계등록 사항 등이 토의되었다.

## 전북지부 정기총회 개최

- 육계 분과에 장영근,  
고석수씨를 새로선임 -

본회 전북지부 (지부장 박인수) 81년도 정기 총회가 지난 1월 19일 (화) 오후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중앙신용협동조합 3층 회의실에서 내빈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정병운 상무의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는 지부활동에 공로가 많은 제일사료(주)오관영 대표이사 외 7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홍용완감사의 감사보고, 81년도 사업보고서의 및 수지에산 결산서심의, 임원보선, 82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기타사항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인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양계업계는 육계를 제외하고 채란·부화등 모두 극심한 불황 속에서 허덕여 자금회전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양계산업은 1차산업의 취약성 때문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고 본 총회를 통해 반성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과감히 시정해 전북지역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양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홍용완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정화운동 추진, 사양관리 등 기술지도 사업, 육계분과 활동 강화, 지부조직 강화사업 외에 양계산물

소비촉진의 실적을 보고하고 조생추 출하보고 미비의 미진실적을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육계분과 운영위원으로 장영근, 고석수씨를 각각 새로 선출 하였으며 다른 임원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

## 배합사료 생산량 통보

본회는 1월호에 게재된 배대로 농수산부 사료과의 협조로 매10일 간격으로 배합사료 생산량을 통보하고 있다. 이는 양계인들에게 입추조절 및 물량, 가격전망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바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란다.

담당 : 지도조사부 한용균 ☎ (752) 3571~2.

## 대한 양계협회 인사

본회 편집부에 정홍섭씨를 특채.



〈정 홍 섭〉

## 본회 전화국번 변경

지난번 본회 사무국 전화국번이 (752)3571, 2로 변경된 데 이어 본회 편집부 전화국번이 1월 24일 0시를 기해 22국에서 752국으로 변경되었다.

☎ (사무국) 752-3571~2

(편집국) 752-6917, 778-8103